

# 추억의 만화

# 보러 오세요

## 만화문화 메카 홍대 앞 절판 만화 전문매장 등장

**서** 울 홍익대학교 앞은 젊음과 문화의 거리로 유명하다. 10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20·30대 젊은이들의 창조적인 사고를 넘쳐나게 받아들이며 새로운 문화와 유행을 생산하는 진원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홍대 앞에 가면 우선 미술학원, 미술재료상 등 미술관련 업종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애니메이션 전문학원을 비롯한 만화전문서점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만화대여점과 만화방은 골목마다 있을 정도다. 이런 이유에서 만화마니아들도 이곳을 만화문화의 메카라고 부르길 주저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한양문고(대표 김기성 www.toonk.com)는 지역총판과 만화전문서점으로서 홍대 만화문화의 근거지 역할을 착실히 수행해왔다.

만화계도 불황이 닥치고 있다는 2003년 봄, 홍대 만화문화 중심축의 하나를 이루고 있던 한양문고가 절판만화 전문매장

'코믹스 몰'을 개장함으로써 만화마니아들의 가슴을 들뜨게 하고 있다. 만화책의 유통기간이 대부분 1~3년에 불과한 실정에서, 일반 만화전문서점이나 중고책방에서도 구하기 힘든 책들을 이곳에 가면 한꺼번에 만나볼 수 있다는 설렘 때문이다.

### 서울문화사 · 시공사 등 주요 출판사 참여

김기성 사장은 "초기에는 서울문화사와 시공사에서 각각 5천권을 공급받아 총 1만권으로 운영되지만 아선미디어, 세주문화사, 대원출판사, 학산출판사 등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향후에는 절판본 만화 전문매장으로서의 입지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러한 절판만화 전문매장이 생겨나게 된 데는 도서정가제 시행이 적지 않은 이유가 됐다.

"이전에 우리와 같은 출판서점은 만화책을 20% 할인해서 판매할 수 있었는데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2월27일 이후에는 최고 10%밖에 할인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러





나 출간된 지 1년 넘은 제품은 도서정가제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에 착안, 고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는 것이 김사장의 설명이다. 이 매장에서 절판만화는 정가의 절반가격에 판매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이다. 김사장은 "절판되었지만 우수성을 인정받아 다수의 마니아들을 확보하고 있는 작품을 공급, 마니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명작들에 새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면서 "이와 같은 서비스 강화를 통해 만화에 대한 마니아들의 관심이 증폭된다면 만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절판만화 전문매장이 문을 열기까지는 서울문화사의 도움이 컸다. 도서정가제 논의가 무르익던 지난해 여름부터 김사장과 서울문화사 마케팅팀 사이에서 청사진이 그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기간 중에 시공사의 참여도 이뤄졌는데 본격적으로 작업이 시작된 지난 1월부터 약 3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지난 4월6일 개장하기에 이르렀다.

###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 명작 다수

'코믹스 폴'이 들어선 지하 60평 매장은 조명이 밝아 따스한 느낌을 줬다. 일본, 유럽의 원서만화와 각종 화보집, 캐릭터 상품들을 진열, 판매하던 곳이었던 관계로 지금도 매장 곳곳에는 각종 캐릭터들이 남아있었다. 출입문 왼편에는 서울문화사 작품들이 책꽂이와 매대 위에 전시되고 있고

정면 쪽으로는 시공사 공간이 자리하고 있었다. 김사장은 참여업체들이 많아질 경우, 절판만화 매장을 원서가 차지하고 있는 나머지 절반의 공간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 한다.

매장에 들어서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독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황민아의 '아르테미스의 활', 신일숙의 '사랑의 아테네', 김은희의 '나비가 없는 세상', '스트레이트 제너레이션', 이은혜의 '블루' 등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몇 권은 그동안 어디서 고생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손상된 표지를 두르고 있었다.

또 키아 아사미아의 '사일런트 피비우스', 가즈라 마사카즈의 '전영소녀', 구마쿠라 유이치의 '왕도독 징', 문홍미의 '인서울' 등의 마니아 소장 희망 1순위 작품들도 책장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출입구 맞은 편 구석에 마련된 진열장도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진열장에는 서울문화사에서 발간한 '코믹 점프', '빅 점프', '윙크' 등의 월간 만화잡지 창간호와 대만으로 수출됐던 박희정의 '호텔 아프리카' 등이 정성껏 전시돼 있었다.

### 다원화되는 독자들의 욕구 겨냥

만화는 청소년·아동의 전유물이 아니고 주고객층도 이들일 것이라 보고 정관념

은 보기 좋게 빛나갔다. 전문매장이라는 특성 때문인지 한양문고는 성인들의 출입이 월등히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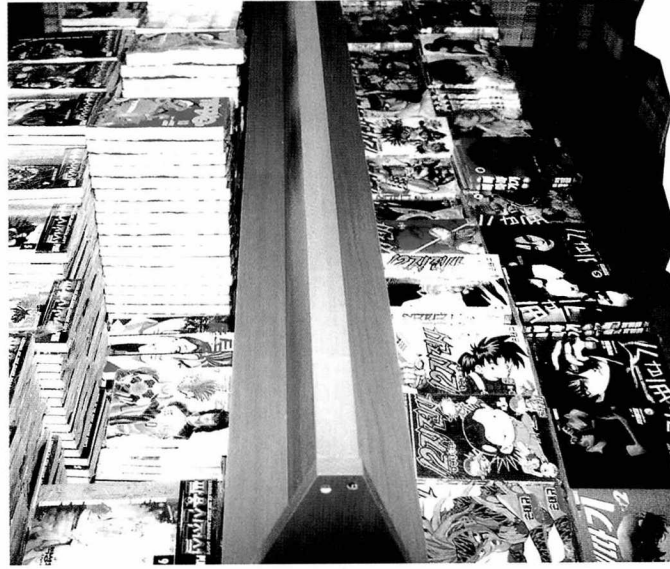
김사장은 "중·고생들의 취미생활이 만화에서 온라인게임 등의 컴퓨터 중심으로 전도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고 이곳을 찾는 고객들의 70% 정도가 성인 마니아들"이라고 밝혔다.

국내 만화시장은 2002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왔다. 마니아들의 지속된 사랑도 있었지만 아동만화와 학습만화가 그 몫을 충분히 담당해줬기 때문이다.

물론 만화시장에 변화의 바람도 관측되고 있다. 제작과정에서의 변화도 있지만 유통시장의 변모는 매우 숨가쁘다. 이것을 대변하는 것이 온라인 유통망의 발전일 것이다. 이에 따라 김사장도 한양문고 외에 온라인 분야를 위한 영문 이름 toonk를 갖고 있다. 김사장은 "toon란 만화를 지칭하는 toon과 book을 합쳐서 만든 합성어로 이 공간을 통해 만화와 관련한 폭넓은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니아들은 나름의 독특한 취향을 가지고 있다. 만화시장의 변천은 이 마니아들





의 다원화되는 기호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순정, 스포츠, 무협 등 비교적 단순했던 소재가 공상과학이나 환타지 등 많은 영역으로 확대되며 만니아들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절판만화의 재판매도 만니아들의 다원

화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는 것이 김사장의 생각이다.

김사장은 3, 4, 5월이 만화시장의 불황기라는 것을 감안해야 하지만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이후 매출이 20%정도 감소했다고 했다.

물론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큰 이유일 것

이다.

도서정가제 시행이라는 제도적 변화와 경기침체라는 대외적인 난관 속에 시도된 절판만화 전문매장이 만화만니아들과 만화업계에게 새로운 자극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갑준기자〉

## 종이관련 상식

### 도공(Coating)과 라미네이팅(Laminating)의 차이점은?

제지공정에서의 도공 즉 코팅은 박리지 제지공정에서의 PE(Poly Ethylene:폴리에틸렌) 라미네이팅이나 기타 비닐 코팅과는 다릅니다. 아트지 제조상의 코팅은 탄산칼슘, 클레이와 같은 무기를 성분으로 이루어지는 투과막 코팅인 반면, 라미네이팅의 경우는 비닐성분으로 구성되는 비투과막 코팅입니다. 따라서 도공지는 재활용이 가능한 반면, 라미네이팅 제품은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박리지의 경우가 좋은 예인데, 예전에는 모두 라미네이팅 처리를 한 제품이었으나, 최근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무라미박리지가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 종이의 횡/종목의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종이는 곁에 따라 어떤 것이 품질이 좋고 나쁨을 판가름 할 수 없습니다. 종이는 결방향에 따라 물리적 성질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 예로 종이가 결방향에 평행하게는 쉽게 접히지만 직각방향으로는 잘 접히지도 않고 접히는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고 하며, 터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쇄를 하거나 가공작업을 할 때, 종이의

결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종이의 사용 방법입니다.

### 온도와 습도가 종이에 미치는 영향은?

종이는 기본적으로 상당한 친수성(親水性)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를 구성하고 있는 펄프섬유(셀룰로오스)가 화학적으로 다량의 수산기(OH)를 가지고 있고, 이 수산기는 물과 아주 잘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종이의 흡수성은 그러나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 물을 흡수할 수도-또 때로는 뱉어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면 종이가 눅눅해지는데 이는 종이 수분을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수분 상승은 종이의 유연성을 높이나 반면에 강도는 저하시킵니다. 반대로 습도가 낮은 경우에는 종이의 수분 함유량이 적어 종이가 딱딱해집니다. 유연성이 줄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온도와 습도의 변화에 따른 팽창과 수축이 반복되다보면 종이는 결국 노화되어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 종이의 흡수성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종이를 구성하고 있는 펄프섬유(셀룰로오스)는 화학적으로 다량의 수산기(OH)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산기는 물과 아주 잘 결합합니다. 따라서

종이는 기본적으로 상당한 친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형태상 속이 빈 파이프처럼 생겼습니다. 펄프섬유의 표면 및 내부에는 이처럼 빈 공간이 존재, 낙타의 등처럼 많은 물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친수성을 가진 종이는 최종 사용처에 따라 내수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화장지나 기저귀, 종이수건 등 위생용지들은 흡수력이 좋아야 하지만, 인쇄용지나 포장지, 지도용지, 라벨지 등은 우수한 내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더블코팅방식과 편면코팅방식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어요

편면코팅은 양면코팅의, 더블코팅은 싱글코팅의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편면/양면코팅은 종이의 한쪽 면만을 코팅하느냐, 양쪽 면을 모두 코팅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담배포갑지, 라벨지 등은 한쪽 면만을 코팅한 것이며, 아트지는 일반적으로 양쪽면 모두를 코팅합니다. 싱글/더블코팅은 코팅을 한번했는가 아니면 두번했는가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한쪽 면을 더블코팅했다면 편면더블코팅지, 양면을 더블코팅했다면 양면더블코팅지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무림제지의 네오아트지는 양면더블코팅지입니다.